

불모지 광주 출판 꽃 피우기... “하루하루가 도전”

인문학 서적 펴내는 출판사 ‘현자의 마을’

돌맹이 하나가 호수에 던져졌다. 금세 가라앉았지만 작은 물무늬를 그리며 호수 곳곳에 파동이 퍼졌다. 문화는 혁명처럼 한꺼번에 오기도 하지만 모래톱처럼 세월을 두고 쌓이기도 한다. 때론, 작은 돌멩이 하나가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수도권 중심의 유통 구조를 가진 한국의 변두리에서 출판사를 하는 것도 호수에 돌을 던지는 일과 같다. 광주의 한 출판사가 ‘공통 마케팅’이 휩쓸고 있는 한국 출판계에 작은 돌을 던지고 있다.

2012년 지혜학교 철학연구소 설립 시작
수도권 중심 출판계에 변화의 돌맹이
유통·인쇄·디자인 열악한 환경 극복
지역작가 발굴·광주정신 표출 은 힘



15일 광주의 인문학 서적 전문 출판사 ‘현자의마을’을 이끌고 있는 지혜학교 철학교육연구소 김태완(오른쪽) 소장과 장민혁씨가 자신들이 펴낸 책을 펼쳐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송산유원지 인근에 동지들 틈 출판사 ‘현자의마을’이 ‘낭독은 입문학이다’ ‘우화로 떠나는 고전산책’ 등 눈여겨 볼 인문학 서적을 펴내고 있다. 사실, 광주에는 출판사가 없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역 출판계가 열악하다. 유통 구조도 없고 편집, 디자인, 인쇄 분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출판사를 운영하기 힘든 곳이 됐다. ‘현자의마을’의 출발도 쉽지 않았다. 지난 2012년 12월 광주 지혜학교 철학교육연구소를 주축으로 몇몇 뜻있는 사람이 의기투합했다. 송실대에서 동양철학을 강의했던 김태완 교수가 철학교육연구소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보따리를 싸 합류했다. 출판계에 발이 넓은 맹한승 편집주간이 힘을 보탤고, 지역 출신인 송현정씨가 마케팅을 도우며 출판사

의 열개가 꾸려졌다. 멀쩡한 직장에 다니던 젊은 철학도 장민혁씨가 합류하면서 운영에도 탄력을 받았다. 치과를 운영하는 조부덕씨는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2013년 10월 철학연구소 김태완 소장이 쓴 ‘우화로 떠나는 고전산책’을 펴낼 수 있었다. ‘현자의마을’은 소수의 독자라도 있다면 보편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책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 김 소장은 “삶의 의미 있는 것을 반추해야 하는데 한국사람들은 책을 읽는 훈련이 안 돼있다”면서 “사회적 고착된 구조를 균열 낼 수 있는 책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고 갈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그런 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혜학교 인근 주택을 손 봐 사무실 공간을 꾸미는 등 이제는 제법 출판사가 자리를 잡

아가고 있다. ‘현자의마을’의 활동이 눈길을 끄는 것은 광주지역의 저자를 발굴하고, 광주의 정신을 담은 책을 만들려고 한다는 점이다. 지역에서 주목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 책을 내고, 이를 가장 잘 쓸 사람을 찾고 있다. 장민혁씨는 “출판사를 운영해 보니, 광주에는 인쇄 시스템, 마케팅, 디자인 등 출판 관련 산업이 전혀 없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 출판사가 활발하게 운영되면 자연스럽게 인쇄, 마케팅 등 출판 관련 산업도 다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자의마을’은 지역민의 삶을 기록하는 집단수기와 자서전 작업을 준비하고, 지역의 대표 문중의 문집을 발굴할 계획도 세웠다. 입소문이 나면서 넉넉하게 인세를 주지는 못해도 저자가 다른 저자를 불러오는 ‘아름

다운 다단계’ 영업도 가능해졌다. 통상 마케팅을 잘하고, 이름 좀 알려진 곳에서 책을 내려고는 하지만 이 출판사의 저자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출판사의 자립을 돕고 있다. 김 소장은 “지역의 저자를 발굴하고, 이들의 책을 내는 것도 지역 출판사의 몫이다”면서 “광주 나름의 문화의식, 가장 광주정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출판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시민의 힘도 필요하다. 시민의 자생적 참여가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다. ‘현자의마을’은 시민 후원을 받고 있다. 그러니 부디, 광주에 출판사가 없다는 말을 듣기 싫은 사람은 힘을 보태주시길. 후원계좌 농협 351-0549-5512-13 예금주 지혜학교 철학교육연구소. 문의 062-959-098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남도예술은행 소장작품 기획전시

여수 예술마루 18일까지...할인 특별경매도



강금복 작 '꿈꾸는 섬'

여수문화예술공원 GS칼텍스 예술마루(이하 예술마루)와 전남문예재단은 오는 18일까지 예술마루 7층 제3전시실에서 남도예술은행 소장작품 기획전시를 연다. 남도예술은행은 예술적 역량이 뛰어난 전남 지역 미술인들의 우수 작품을 모아 판매함으로써 지역 미술시장을 활성화하고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문예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예술마루와 전남문예재단은 모두 4차례에 걸쳐 남도예술은행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3월 열린 1분기 전시 이어 두번째다. 전시에는 강금복 작가의 한국화 ‘꿈꾸는 섬’을 비롯해 서양화, 문인화, 서예·서각 등 전남의 정서를 소재로 한 30여 점이 전시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전시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2시에는 전시된 작품들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별경매가 진행된다. 문의 061-808-70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문화산책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초등생 대상 28~31일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28~31일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문화산책’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저학년(1~3학년, 28~29일)과 고학년(4~6학년, 30~31일) 대상으로 나뉘어 있다. 올해는 음력 6월15일(양력 7월30일) 유두(流頭)를 맞아 우리의 여름철 세시풍속에 대해 알아본다. 유두는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풍속이 있는 우리 고유의 명절이다. 첫째 날에는 여름철 세시풍속과 관련한 이론 학습과 달력 만들기를 진행한다. 또 유두날에 먹는 유두면, 수단을 만들어본다. 둘째 날에는 부채를 만들면서 옛 조상들의 여름나기를 살펴보고, 탈을 만들어 흥겨운 탈춤을 배워보는 시간이 마련돼 있다. 강사로는 김형준 학예연구사, 이지연 에듀케이터, 김현진 전통음식연구가, 김명균 부채공예가, 정재일 전통놀이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 참가신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를 통해 하면 되며, 가족을 동반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재료비는 어린이 1명당 2만1000원이다. 문의 062-613-536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현자의 마을’이 펴낸 책

‘삼국지, 역사를 가다’
 ‘책문’ ‘낭독은 입문학...’
 철학·역사 등 인문학 위주



‘현자의마을’은 인문학 서적을 주로 출판하고 있다. 최근 개정판을 낸 광주지혜학교 철학교육연구소 김태완 소장의 저서 ‘책문(策問)’은 왕의 물음(책문)과 선비들의 대답(대책), 역사의 해설(책문 속으로)로 구성됐다. 책문은 일종의 조선시대 고급공무원 선발 시험인 대과

의 마지막 단계에서 출제된 시험과 답안의 한 유형이다. 왕과 젊은 인재들이 나눈 대화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을 담았다. 또 ‘문학다방 봄봄’ 김보경 대표의 ‘낭독은 입문학이다’는 낭독을 통해 인문학을 이해하는 법을 소개한다. 두껍거나 어려운 고전을 낭독하면서 행복을 찾는 과정을 담았다.

삼국지 연구 전문가인 부산대 중문과 남덕현 교수의 ‘삼국지, 역사를 가다’ ‘관우’는 중국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이다. ‘삼국지, 역사를 가다’는 적벽대전, 이릉전투, 관도대전, 맥성전투 등 삼국지에 등장하는 역사의 현장을 소개하고, ‘관우’는 영웅적 삶을 살다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관우의 삶을 조

명했다. 이 밖에 중국 우화를 통해 동양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김태완 소장의 ‘우화로 떠나는 고전산책’과 자유여행가 박일호의 인도기행집 ‘꿈리거나 혹은 멀리거나’ 등도 ‘현자의마을’이 펴낸 귀한 책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www.doidam.net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의를, 전.중신대학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KT ● 중앙초교

KT ● 중앙초교

KT ● 중앙초교

KT ● 중앙초교

진료문의 (062) 227-7575